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윤상흠 무역정책과장(2110-4829), 박경민 주무관(2110-4833)

100번째 「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」 탄생
- 「제51회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」 시상식 및 오찬간담회 개최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「제51회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(이하 이달의 무역인)」 시상식을 무역협회 및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7.11(수)에 무역센터에서 개최

○ 금번 「제51회 이달의 무역인」에는 수출실적, 기술력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(주)스마일게이트의 권혁빈 대표 등 3명의 무역인이 선정

<제51회 이달의 무역인 수상자>
· (주)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대표(게임소프트웨어)
· (주)누가의료기 조승현 회장(의료용 온열 자극기)
· (주)명정보기술 이명재 대표(하드디스크드라이브 수리기술)

○ 특히, 「이달의 무역인」은 '07년부터 매월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인에게 수여한 이래, 이번에 100번째 수상자를 배출

□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00번째 수상자 선정을 계기로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자에게 증서와 상패를 직접 수여하고 격려하였으며

○ 축사를 통해 '무역2조달러 달성을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의 과감한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하고, 이를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'을 강조하는 한편,

○ 시상식 후 역대 수상자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

참고1 제51회 이달의 무역인상 시상식 및 오찬간담회 개요

1. 행사 목적

□ 우리부는 한국무역협회,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무역업계의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 '07. 7월부터 「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」 상을 시상

○ '12년 7월에 100번째 수상자가 배출될 예정인 바, 장관님을 포함한 3개 기관장 등이 참석하여 시상식의 의미를 제고

2. 행사 계획(안)

1 시상식

○ 일 시 : 2012. 7. 11(수) 12:00~12:30
○ 장 소 :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
○ 참석자 : 약 50명
- 장관님, 한국무역협회 한덕수 회장, 한국경제신문 김기웅 사장
- 수상자(3명*), 가족 및 임직원 (약 20명)
- 역대 주요 수상자 (한빛회 오석송 회장 등, 23명)

<제51회 수상자>
· (주)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대표(게임소프트웨어)
· (주)누가의료기 조승현 회장(의료용 온열 자극기)
· (주)명정보기술 이명재 대표(하드디스크드라이브 수리기술)

2 오찬간담회

○ 일 시 : 2012.7.11(수) 12:30~13:30
○ 장 소 : 무역센터 51층 중회의실
○ 참석자 : 약 30명
- 장관님, 한국무역협회 한덕수 회장, 한국경제신문 김기웅 사장
- 수상자(3명) 및 역대 주요 수상자 (한빛회 오석송 회장 등, 23명)

참고2 **「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」 상 개요**

1. 개 요

□ 목 적 :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수출에 매진하고 있는 무역업체의 수출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

＊ '07년 7월부터 매월 선정(8월·11월은 하계휴가 및 무역의 날 행사로 제외)

□ 주 최 : 지식경제부, 한국무역협회, 한국경제신문사 공동 주최

＊ 주요참석자 : 무역투자실장, 무역협회 부회장, 한국경제신문 이사

□ 시기 및 방법

○ 매월 초 수상 대상자 공모 및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 심사 후 원칙적으로 중소 중견기업 수상자를 2명 선정

- 연말에 1년 동안 선정된 무역인 중 한 명을 '올해의 무역인'으로 선정

＊ 수상기업은 무역협회의 무역기금 융자 가산점부여 및 대외홍보 혜택

□ 선정방법

○ 주최기관 실무진,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

- 심사위원회가 공적조서 등에 기초한 심사자료를 통해 서면 심사

2. 한빛회 (수상자 모임) 현황

◈ 목 적 :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상자간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

◈ 활 동 : 매년 합동 워크샵 및 정기총회 개최 / 무역업계 간담회 참석

＊ 정기총회 시 '올해의 무역인' 시상식 개최

◈ 회원현황 : 총97명 (회장 : 오석송 / (주)메타바이오메드대표)

＊ 기계 및 전기전자분야(약45%) 및 수도권(약64%)의 기업이 다수